Q1. What makes you move?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11번의 실패와 1번의 성공,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집념과 근성]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도전하는 집념과 근성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목표를 향한 집념과 근성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으로 이끌며 반복된 도전과 성공을 통해 한 단계씩 성장하게 합니다.

1년간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면서 사업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업제안서 작성 초기에는 많이 서툴렀습니다. 입찰 탈락을 11번이나 경험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입찰에 성공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은 굳건히 다졌습니다. 탈락했던 제안서들을 복기하며 원인을 분석하였고, 제안에 대한 상황 및 환경 분석이 부족하여 제안사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여기 문장이 좀 어색한듯 -> 탈락했던 제안서들을 복기하며 분석하였고, 원인은 제안에 대한 상황 및 환경 분석이 부족하여 제안사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 다음 입찰이었던 '2017 가상현실 기반의 진로체험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고객(제안사) 중심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철저한 상황 및 환경분석 결과 KAIST에서는 이미 2~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내용 외에도 1명의 진행자가 다수의 수강생들을 한 번에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네트워크를 이용해 다수의 VR 콘텐츠를 원격 통제하는 솔루션을 콘텐츠 아이디어와 융합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입찰 통과라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스타트업에서의 경험은 목표를 향한 집념과 근성을 더욱 강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도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목표를 향한 집념과 근성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강한 집념과 근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직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Q2.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며, 왜 현대자동차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기술해 주십시오.  
  
적응력이라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혁신을 주도하는 현대자동차]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내가 일하는 기업이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가?’ 입니다. 포니로 시작한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업계에서 후발주자였기에 앞선 기술을 빠르게 따라 하는 'Fast Follower'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출시하는 등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는 'First Mover'의 위치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차와 서버형 음성 인식 솔루션 적용 등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는 현대자동차를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방면의 도전을 통해 기른 적응력, 변화에 대한 빠른 대처를 가능케 하다]

회사를 선택하는 두 번째 기준은 ‘내가 가진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일련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IoT, VR 등 신기술에 도전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새롭게 도전할 때마다 기초부터 배워 나갔고, 도전이 반복되면서 신기술에 쉽게 적응하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적응력을 바탕으로 최고 학점과 공모전 수상이라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적응력은 빠르게 변하는 IT 기술에 대한 대처 능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IT 기술에 대한 적응력은 IT 기술을 통해 자동차의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현대자동차에서 충분히 발휘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동차는 미래 '커넥티드 라이프'에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수한 변화가 현대자동차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강점을 이용해 변화들에 빠르게 대처하여, First Mover로의 혁신을 주도하는 현대자동차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기준을 2개로 나눔으로써 모호해짐…. 연결되게 하려면 잘 풀어가든가, 나눌거면 2번째를 보충하던가

Q3. 현대자동차 해당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신기술로 현재보다 더 나은 효과를 창출하는 부서 ‘IT 전략’]

스타트업에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신기술을 통해 현재상태를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기술을 통해 지금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제안하고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수행하고 싶었습니다. IT 전략 부서는 새로운 기술을 지속해서 탐구하고, 신기술을 현업의 업무 개선에 적용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전략을 기획하고 제시하는 일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IT전략’부서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해당 직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2가지가 있습니다.

[IT 트렌드를 읽고, 데이터의 Insight를 캐치합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Optitrack이라는 공간 및 모션 트래킹 기술과 Hapticshoes, 5G 등의 신기술을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CES', 'MWC', 'IFA'와 같은 국제 전시나 'F8', '구글 I/O'의 IT 기업 컨퍼런스를 통해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험과 노력을 통해 급변하는 IT 기술을 빠르게 인지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여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 데이터 중 구간별 버스 승하차 인원 데이터를 통해 구간별 혼잡도 및 교통체증 정도를 알아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른 승하차를 통해 교통체증을 줄인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금상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현업 업무에서 쌓인 데이터를 통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내고, 이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IT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는 능력은 IT 전략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업무 개선 제안을 통해 혁신을 향해 나아가는 현대자동차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